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활동 본격화

진학전문교사 60명 참여… 대입 정보 전략 지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2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승국 전북여고 교사를 단장으로 총 60명의 진학전문 교사가 참여하며, 자문위원(3명), 업무팀(10명)도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 △대입전형 연구지원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눠 2019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또 수시전형 합격사례 분석 자료와 면접가이드 발간·제작에도 관여한다.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온·오프라인 대입상담을 맡게 되며, 고3 대상 수시·정시 진학상담과 콜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운영도 담당한다.

또 대입전형 연구지원팀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분과, 특별전형(농어촌, 기회균등, 논술 등) 연구 분과, 수능전형 연구 분과 등 3개 연구분과를 두고 분과별 집중 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대입진학지도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대입전형 결과 및 주요대학 전형요강 분석, 수시·정시 지원전략, 단위학교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4월과 7월, 12월에 심층 전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능력있는 진학전문 교사들로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였다"면서 "지원단은 사교육 진학컨설팅 수요를 해소하고 권역·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통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도교육청, 내달부터 상시 지원
직무 관련부터 개인 문제까지
지방공무원 전문상담 진행

전북교육청은 직무 또는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해 준다.

도교육청은 '2019 지방공무원 상담 지원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 다음달부터 상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상담 지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신적 고충을 전문상담을 통해 해소해줌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즐겁게 근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진행되며,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상사와 후배 등 구성원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등 직무관련에서부터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 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개인관련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성장과 발전 및 미래에 대한 상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해당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며,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집단상담은 민원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집단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센터 및 상담가를 연결해 집단상담을 받도록 해준다.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하며, 상담지원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상담기관으로 지급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29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18개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상담을 통해 직무관련 뿐만 아니라 개인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 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가 25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총 352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배우길"

전주교대, 입학식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5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총 352명(학부 301명과 교육대학원 51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김우영 총장의 입학 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학부 백승한 학생과 교육대학원 허정수 학생의 입학허가 선서와 김우영 총장, 윤덕임 동창회장이 대표 학생들에게 교표를 수여하는 행사, 입학식 훈사 및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선서는 학부 백승한 학생과 교육대학원 허정수(교육전공) 학생이 전체 신입생을 대표해 진행했다.

김우영 총장은 입학식 훈사에서 "새롭게 황학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대학교는 10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으로서 여러분이 초등교사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문에 몰두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HR 담당자 협의회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도내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6일 전북도를 비롯해 잡코리아(유), 팀경영컨설팅, ㈜탑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총 10개 일자리 컨설팅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전북지역 HR(human resources)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HR담당자 협의회는 도내 구직 희망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여성취업 및 직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기업의 여성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협력 등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협의회는 여러 분야의 기업 인사담당자를 주축으로 △신규채용인원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채용지원금 신청계획 △새일센터 신규사업 제안 △기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여성친화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여성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가 26일 송재복 행정학부 교수와 한창규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에 대한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원대, 정년퇴임식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6일 송재복 행정학부 교수와 한창규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에 대한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대학 보직교수와 대학 관계자 및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퇴임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약력소개 및 총장 축사 그리고 정부포상과 공로패 수여로 진행됐다.

28년간 재직한 행정학부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써온 송재복 교수는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받았으며, 30년간 재직한 시각디자인학과의 한창규 교수는 대통령표창과 공로패를 받았다.

강희성 총장은 "그동안 우리 호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한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퇴임 후 제2 인생설계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송재복 교수(행정학부)는 법행정학부장, 행정학과장 및 연구지원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한창규 교수(시각디자인학과)는 산업디자인학과장, 시각디자인학과장, 공공디자인학부장, 방송예술대학장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입학전형 개선 TF팀 회의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5일 대학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TF팀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초등교육과 최병연 교수, 수학교수과 고은성 교수, 전북교육청 채선영 장학관, 전북여고 교사 안승국, 전주영생고 교사 박상용, 그리고 입시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학전형 개선을 위해 우리 대학 입학현황 및 환경 등을 브리핑했고, 입학 전형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총장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역인재선발 인원을 현재의 4배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우영 총장은 "그동안 전라북도의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늘 고민해 왔다"며,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 학생을 배려하고 학생중심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TF팀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